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
제37권 37호(가해) 2017년 8월 6일

[묵상]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569-3940

"악마 자의선은 당신을 노린다."

믿는다는 것, 신앙한다는 것은
믿음에 수반되는 고통과 어려움, 십자가를 받아들이며,
이를 통해 자신을 변화시켜 가는 것을 의미한다.

믿음으로서 인해 생기는 갈등과 마찰과 아픔을
그 믿음 안에서 용해시키고,
그로써 만들어진 새로운 영양크림을 바름으로써
하느님을 닮아 가는 것이다.

그러나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다.
현실에 안주하려는 안일한 욕망은 변화를 원치 않게 하며,
그냥 현재의 상태로 머물러서
두려움도 고통도 없이 생을 보내려고만 한다.
그러다 보니
시커멓고 주글주글한 영혼의 모습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이제 영혼의 찌든 피부에 젊음과 영양을,
영혼의 얼굴에 하얀 아름다움을 주어야 한다.
유혹과 악마 자의선을 차단시켜
백색영혼의 미인, 미남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제 화장을 시작해야 한다.
그 화장은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영혼과 육신의 피폐와 노화를 방지시켜 주는 것이다.

예수님의 화장술의 비결은 '사랑'의 마음이었다.
영혼의 표백제인 이 사랑크림을 즐겨 사용함으로써
영광스런 모습으로 바꾸어 가야 한다.
가장 이상적인 영양공급 화장품인 영성체를 애용하며,
기막힌 피부청결제인 고해성사를 자주 사용함으로써,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도록 노력하자.

"악마 자의선은 당신을 노린다"

악마 자의선을 차단하여 백색신앙인으로 남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영혼화장의 노력이 필요하다.

-오-

petrus3@hanmail.net

미사 안내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 토요일) 저녁 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7,8월 방학 미사없음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 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성경통독)	오전 9:3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넷째 토요일) 울뜨레아(넷째 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오후 8:00 저녁 미사 후
주일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데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견회) ●꾸리아 3째주 - ●요셉회 4째주 - ●사목회 ●빈첸시오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주일	8시(오전)~4시(오후)	
월	CLOSED	
화	CLOSED	2:00~7:00(오후)
수	9:30~11:30(오전)	2:00~7:00(오후)
목	9:30~11:30(오전)	2:00~7:00(오후)
금	9:30~11:30(오전)	2:00~7:00(오후)
토	9:30~11:30(오전)	2:00~7:00(오후)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 출발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요 저녁 미사	(연)이용식 베드로, 이영순 아네스, 서성용 베드로, 박승주 카타리나의 조상 & 박승효 & 박 레이몬드, 김수미혜 아네스
	(생)박승주 카타리나의 가족
주일 낮 미사	(연)박정미 클라라, 고준희 제임스, 우일환 모이세, 최경숙 수산나, 석순영 아네스, 민기남 모니카, 김진엽 마지아, 강용길 & 강정자, 안지조 & 차소조, 소창영 & 소준주, 김수미 아네스
	(생) 최기남 야고보 & 최옥희 데레사 가정, 손석 스테파노, 김상규 니콜라오 & 김성민 카타리나가정, 엄정자 분다, 오주영클라라 & 조소영 수산나 & 조정석 수산나, & 김옥찬 수산나, 이현창 야고보 & 김순희 모니카 & 윤선희 로사 & 윤철 아오스당, 아벨라 덴도자, 김지훈 대건 안드레아, 김마누엘라수녀, 오창근 베드로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다니엘 예언서 (Prophet Daniel) 7,9-10.13-14

화답송 ○ 주님은 임금입니다. 온 땅 위에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다.



○ 주님은 임금입니다.

땅은 즐거워하고, 수많은 섬들도 기뻐하여라.
흰 구름 먹구름 그분을 둘러싸고, 정의와 공정은 그분 어좌의 바탕이라네.○

○ 주님 앞에서 산들이 밀초처럼 녹아내리네.
주님 앞에서 온 땅이 녹아내리네.

하늘은 그분 의로움을 널리 알리고,
만백성 그분 영광을 우러러보네.○

○ 주님, 당신은 온 땅 위에 지극히 높으신 분,
모든 신들 위에 아득히 높으시옵니다.○

제 2독서 베드로 2서 (2 Peter) 1,16-19

복음 ○ 알렐루야.

환호송 ○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복음 마태오(Matthew) 17,1-9

영성제송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리라. 그분을 있는 그대로 뵈게 되리라.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제1장

공동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II. 물의 문제

30.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물의 질은 계속해서 악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어떤 지역에서는 이 부족한 자원을 민영화하려는 추세가 나타나 물이 시장논리에 지배되는 상품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물에 대한 접근권은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인권입니다. 물은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이며, 바로 그래서 다른 인권들을 행사하는 데에 전제조건이 됩니다. 물을 마실 수 없는 가난한 이들에게 이세상은 커다란 사회적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짐해할 수 없는 존엄에 맞갖은 생명권이 부인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깨끗한 물과 위생시설을 마련해 주려고 재정지원을 확대하면 그 부채가 어느 정도 경감됩니다. 그렇지만 선진국뿐만 아니라 많은 물을 보유하고 있는 개발 도상국 안에서도 물의 낭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물 문제가 어느 정도 교육과 문화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불평등이 심한 상황에서는 그러한 행위의 심각성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1. 심각한 물 부족은 식품 가격과 물 사용에 의존하는 여러 상품들의 가격상승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서둘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몇 년 안에 극심한 물 부족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환경의 충격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다국적 대기업들이 물을 통제하면 21세기의 커다란 분쟁 요소가 될 것입니다.²³⁾

III. 생물 다양성의 감소

32. 경제, 상업, 생산활동에 대한 근시안적 접근으로 지구의 자원이 착취되고 있습니다. 숲과 삼림지대의 손실은 생물 종들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생물 종들은 식량만이 아니라 질병치료와 여러 용도로 이용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미래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생물 종 들은 앞으로 인간의 필요에 도움이 되고 환경 문제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원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 계속 >

23) 프란치스코, 국제 연합 식량농업기구의 직원들에게 한 인사말, 2014.11.20., AAS 106(2014), 985면 참조.

오늘의 성가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시작	234	234	238
봉헌	257	257	255
성체	302	302	300
파견	214	214	177

주님의 거룩한 변모

오늘은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입니다. 교회의 옛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가 당신의 수난과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40일 전에 일어났다고 믿어져 왔기에, 교회는 ‘성 십자가 현양 축일’(9월14일)로부터 40일 전(8월 6일)에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례력의 배치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변모’와 ‘십자가 사건’ 사이의 긴밀한 연관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복음서에 나오는 ‘주님의 거룩한 변모’ 기사의 문맥과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됩니다. 세 공관 복음서에 공통으로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 기사 앞의 전개를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먼저 있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첫 번째 수난 예고’가 따르고, 이어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가르침’이 따르고, 이어서 오늘의 복음 본문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 기사가 이어지는 문맥이 세 공관복음서들에 공통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문맥의 전개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를 ‘십자가 사건’과의 연관성 안에서 이해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오늘 복음 본문을 보면 그 서두에 ‘옛세 뒤에’라는 표현이 있는데, 성서학자들에 따르면, 이는 단순한 시간 표현이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의 축제 ‘초막절’과 연관된 표현이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베드로가 열렬절에 ‘여기에... 초막 셋을 지어’라고 운운한 것도 초막절이라는 유대인들의 배경과 어울리는데, 사실 유대인들의 ‘초막절’은 결국 예수님의 육화와도 연결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요한 1,14)라는 표현에서 ‘사셨다’라는 단어의 원래 뜻을 직역하면 ‘텐트를 펼치다, 초막(장막)을 치다’입니다. 따라서 “말씀이 육(肉)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초막을 치셨다” 정도로 직역되는데, 여기에서 ‘초막’과 ‘육화’의 연관성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유대인들이 저 먼 옛날 이집트 탈출 후 40년 동안 광야를

헤맬 때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기념하는 초막절 축제가, 한편으로는 장차 ‘저 세상’에서 살게 될 하느님의 장막을 미리 보여주는 ‘종말론적 희망’의 축제이며, 결국 그 ‘완전한 성취’를 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육화로 말미암아 완전한 성취가 시작되었고, 그 완성에 이르는 길은 십자가를 통해서라고 복음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살이는 지나가는 ‘하룻밤 슛닥’일진대, 일상의 크고 작은 아픔과 절곡에 허덕이는 우리들에게 눈을 들어 더 높은 곳을 향하도록 오늘 복음은 우리를 독려합니다. 황금이 최고신(神)의 자리에 놓여있어 끝을 모르고 치닫고 있는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경쟁에 지치고 갈 곳 잃은 우리에게, 눈을 들어 더 높은 곳에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있음을 상기시키며, 일상에서 우리가 바치는 작은 십자가들이 의미 없는 고생이 아니라, 그 ‘영원한 장막’에 이르는 KEY임을 오늘 복음은 묵상케 합니다.

◆정순택 베드로 주교 / 서울대교구 보좌주교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일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사는 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떤 오해까지 겹쳤을 때,
날 믿어주고 이해해 주는 사람 하나 없을 때,
정말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내 편이 없는 것일까
절망감에 허덕일 때,
그때 내가 내편이 되어줘야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일이
왜 그토록 중요하냐고 묻는 이들에게
이렇게 대답하곤 합니다.

- 이영 아네스 -

이번주 전례봉사가

다음주 전례봉사가

이번 주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다음 주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유지아 클라라	정광미 프란체스카	송인선 안젤라	해설자	조병준 프로렌시오	신덕례 데레사	남성철 베네딕도
제1독서	박진수 스테파노	김교복 레오	신중철 아브라함	제1독서	송인선 안젤라	이민상 요한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	서용숙 에스텔	김금자 데레사	정명모 마리아	제2독서	서용숙 에스텔	이순자 비비안나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서 3반	제물봉헌자			PV 3반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미사 시작 20분 전에 독서와 복음 읽기를 합니다.
매일미사책이나 성경을 가지고 미사에 참여 합니다.
- ◆오늘 주일(6일, 매달 첫째 주일)은 성전 기금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성모승천 대축일미사 : 15일 (화)아침 8시30분,
 저녁 7시30분
 8월15일(화)은 ‘성모 승천 대축일’ 입니다.
 이날은 주님의 어머니이신 동정 마리아께서 하늘나라로
 불림을 받아 오르신 것을 기념하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
 를 드리는 날입니다.

- ◆백삼위 한인성당 장학회 제6회(2017~2018학년도)
장학금 수혜자를 선발하였습니다.
선발 된 후보자들은 학업성적의 우수성을 보여주었을 뿐 아니
라, 성당 및 외부에서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남
을 위하여 생활하는 신자로서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 선발된 수혜학생 은 다음과 같습니다. (6명 :-가나다 순)
김다연(Elijah) , 김세민 (Lydia), 김승미(Veronica)
이어진(Michael), 정원재 (Antonio), 정하늘 (Matilda)
장학증서와 장학금 수여식은 오늘주일(6일) 낮 11시 미사 중에
있습니다.

- ◆ 요셉회 7월 정기모임
- 일시 :8월20일(제례 주일) 11시 미사 후
- 장소 : 강당
- 문의 : 정기은 비오 ☎ (310) 780-2789

- ◆ 성령대회 접수
- 티켓 판매와 도시락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도시락 접수 마감: 8/13)
- 가정봉헌 및 광고 접수 (마감:8/7)
봉헌하신 개인, 가정, 사업체를 위하여 대회기간 중
매 미사에 봉헌됩니다.
접수처: 사무실 앞 현관입구, 주일미사 전후
- ◆제 30차 성령쇄신대회
- 주제:여러분이 바로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1코린 3,17)
- 일시: 8월 26일(토) 오전8시-오후10시,
8월 27일(주일)오전8시-오후6시
- 장소:Redondo Beach Performing Arts Center
(1935 Manhattan Beach Blvd, Redondo Beach, CA 90278)
- 강사: 송봉모 토마스 신부님 (서강대 교수)
안규도 도미니코 신부님(인천교구 성령쇄신 지도신부)
최영배 비오 신부님 (들꽃마을 창설자)
- 참가비: \$20 (당일 현장 \$25)
- 준비물: 목주, 도시락,물
(도시락주문 가능-8/13 주문마감, \$7/1개)
- 주의사항:장소 사정상 국물이 있는 도시락은 절대 불가합니다.
도시락은 장내 반입이 안되므로 바깥 텐트에서 보관해야 합니
다. 상하지 않는 음식을 준비 해 오시기 바랍니다.
- 주최: 남가주 성령쇄신 봉사회
- 문의: 강혜원 아네스(310-780-0369)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8월은 한달 간 친교 점심 나누기 없습니다.
- 8월13일 : 흥합미역국 (\$3, 토복: 성소 후원 기금마련)

지나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성전헌금
강순복 강인모 구자운 김광자 김상기 김일선 김정선 김정웅 김 준 남성철 박승주 박정희 박종열 박진희 서용숙 안민수 안종연 오강남 오상준 오세원 오수인 오일순 이병우 이원형 이주창 전정일 정명모 정순석 황인종 송마이클	강순복 강인모 구자운 김상기 김 준 남성철 박정희 서용숙 안민수 안종연 오세원 오수인 이병우 이주창 정순석 황인종 송마이클
합계:\$4,590	합계 : \$2,370
주일미사헌금 :\$2,210	주일학교 :\$480 주보광고 : \$240

◆ 주일학교 & 한국학교 교사 모집

백삼위 한인성당 주일학교와 한국학교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봉사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 연락처 :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103skccks@gmail.com
☎ (213)700-9399

남가주 소식

◆ 말씀과 함께 하는 피정

- 일시 : 2017년 8월 12일(토) 오전 10시-오후 5시
- 주제 : 루카복음
- 준비물 : 성경, 필기구, 개인컵
- 회비 : \$10(점심포함 - 전달까지 신청해주세요)
- 장소 : 남가주가톨릭성서모임(CBLM) 센터
6751 Western Ave, Buena Park, CA90621
- 문의 : 714)521-1345

◆ 일상 삶 안에서의 영신수련(9개월 과정)

- 지도 : 박준성신부 (예수회)
- 기간 : 2017년 9월~2018년 6월
- 장소 : 로올라 영성센터, 성 요셉 수녀원내 영성 건물
434 S. Batavia St. Orange, CA 92868
- 문의 : 전 아네스 (Jenny Jun) ☎ (213)507-1144

◆ 성령안의 새 생활 세미나 남가주 청년 성령기도회

KYCR New Life in the Holy Sprit Seminar
"Be Still" (Psalms46:11)

- 제목 : 청년들을 위한 기초 성령세미나
- 일시 : 8월 25일(금) 오후5시~27일(주일)오후4시
- 장소 : 데메콜라 꽃동네 피정의 집
- 대상 : 하느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모든 젊은이
- 참가비 : \$150(당일 현장 \$25)
- 문의 : Jeane Yoon (562)676-7933,
김 모니카 (310)999-1142

◆ 예수성심 피정의 집 전립

- Payable to : Jesus Sacred Heart Retreat Center
Mailing Address : PO Box 75509, LA, CA 90075-5509
- 금액에 상관없이 벽돌 하나 봉헌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자동입금도 가능합니다.>
- 계좌번호 : Bank of Hope 은행
Routing No. 122038251
Account No. 001913271
- 문의 : 최대제 신부 ☎ (213)248-9707
아그네스성당 ☎ (323)731-4433

노공동체 8월 반모임

소 공동체 부장	김준 방지거 625-3312		
구역 / 장	반	반장	비고
토렌스 동 김준자 막달레나 (539-3377)	1	오신재 메히틸다 (713-4926)	오신재 메히틸다 8/16(수)오전11시 성당
	2	장수영 패트리치오 (781-0787)	
	3	한길선레 스콜라스티카 (218-7824)	
토렌스 서	1	박동수베드로 (218-7340)	임순 데레사 8/5(토) 오후5시
	2	김 아네스 (419-309-7256)	이재호 펠렉스 8/12(토) 오후5시30분
	3	박명순 안나 (968-7600)	우영희 엘리사벳 8/20(주일) 12시성당
토렌스 남 김희연 루시아 (213-458- 3356)	1		최옥희 데레사 8/18(금) 오후7시30분성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이제옥 로사리아 8/15(화) 오전11시
	3	전하현 마리아 (213-550-6653)	(일)12시30분 성당
토렌스 북 황지영안젤라 (938-8089)	1	최미열 클라라 (938-8089)	최미열 클라라 8/14(월)오후7시
	2		
하버 칼슨 김윤진 카타리 나 (997-5545)	1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윤희동 안토니오 8/13(주일) 오후5시 성당
	2		
	3	1,2반과 같음	
P.V 유지아 클라라 (793-6157)	1	유현화 리디아 (735-3722)	오 스테파노(310) 756-7776 8/11(금) 오후7시
	2	안희정 스콜라스티카 (213-344-9738)	이재준 요한 8/19(토)오후 6시
	3	신혜정 로사 (213-369-0687)	
	4	변복순 베로니카	

이번 주일 단체 모임

구역장/ 반장회의	1시
-----------	----

다음주일 단체모임

제 단체 모임	
---------	--

하느님의 부르심

성당에 가서 처음으로 미사를 봤던 기억을 잊을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간 성당이었죠. 성체 맛은 어떨까 궁금해하면서 꽤 착실하게 교리 공부를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사실 성인이 될 때까지만 해도 천주교 신자가 되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죠. 그저 주일 미사를 빼 먹으면 예수님한테 혼날지도 모른다는 생각, 꼭 참석해야 한다는 의무감만 있었습니다. 고3 때, 학력고사를 마치고 대학 원서를 낼 때였죠.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 손을 잡고 보름 동안 새벽 미사를 다녔습니다. 고3이 대개 그렇듯 예수님께 원하는 대학에 꼭 붙게 해 달라는 간청이었죠. 그때 처음으로 종교가 주는 의미가 내 마음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시의 기도를 반박에 들어주지 않으셨지만, 그 또한 지금 돌이켜 보면 뜻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성인이 되고부터 점점 본격적으로 종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죠. 하늘에 계시다는 우리 아버지 하느님은 실제로 어디 계시지? 예수님이 행했던 그 많은 기적들은 과연 사실이었을까? 종교라는 게 인간의 삶에 꼭 필요한 걸까? 이런 의문에 당시 내 지식과 생각의 범주에서는 낙관적인 해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때 냉담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나는 다시 성당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느님께 의지할 수 밖에 없는, 하느님에 의해 만들어진 나약한 인간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특별한 계기나 뜨거운 신앙 체험이 없어도 하느님은 그렇게 오랜 시간 내 삶에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하느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용한 신앙생활을 했고 점점 당신이 내 삶을 인도하는 것 같은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배우자를 만났고, 그녀는 신앙심이 깊었으며, 우리는 서로로 인하여 하느님께 더욱 다가가게 되었죠. 그리고 수많은 대학 중 가톨릭대학교에서 운명처럼 교편을 잡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들의 유치원 문제로 고심할 무렵 우연히 성당 부설 유치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굴곡 없는 삶이지만 평범함 안에 숨겨진 하느님의 이끄심들이 신기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초등학교 때 부모님 손에 이끌려 신자가 되었던 40여 년 전, 이미 하느님은 나를 당신에게 이끌고 계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끔, 뜨거운 체험을 한 신자들을 보면 신기한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해서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는 건 아니죠.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 보면 하느님은 조용하게, 그러나 나에게 어울리는 고유의 방법으로 내 삶에 개입하셨던 것 같습니다. 나의 남은 모든 삶도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려 합니다.

◆ 위정호 알로이시오/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환경공학과 교수

[길을 찾는 그대에게]

미사에서 초를 켜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 초를 켜는 것은 악마의 힘을 억제하려고 빛을 사용했던 이방 관습에서 유래되었다고 알려집니다. 초기 교회에서는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사용되다가 점차 죽은 자들, 특히 순교자들의 무덤에서 기도할 때 초를 사용하였고 4~5세기에 이르러서는 성인들의 유해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형상을 앞에 초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후부터 초는 세상의 빛이시며 부활이신 그리스도, 하느님의 현존, 기도, 선행, 봉헌, 희생, 사랑, 희망, 하느님의 은총 등의 상징으로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4세기부터는 미사를 시작할 때, 초를 사제들에게 들고 가는 것이 존경의 표시로 관례가 되었습니다. 미사에서 제대 위에 초를 켜기 시작한 것은 7세기 즈음인데요. 17세기부터는 미사에서 촛불을 밝히는 것이 전례의 의무로 자리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초의 숫자도 정해졌는데요. 평일 미사에서는 2개의 초를 켜고, 축일급 미사에서는 4개의 초를 밝히며 대축일급 미사에서는 6개의 초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특히 교구장의 주례 미사에서는 7개의 초를 켤 것이 명시됩니다. 교구장은 '그리스도를 대변하며'(묵시 1, 12~13 참조) 칠성사를 집전하는 사제이므로 7개의 초를 켜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듯 초는 빛과 부활의 상징으로 전례의 도구이며 이 초를 밝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야 할 사명을 상기시키는 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권순호 신부 / 주례성당 주임

십자 성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루에 몇 번이나 이렇게 성삼의 이름을 부르며 십자성호를 그으세요?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전례나 기도의 시작과 끝뿐만 아니라 하루 일과나 각종 모임의 시작과 끝에 자주 십자성호를 긋습니다. 아, 식사 전후에도 꼭 긋지요. ‘잘 먹겠습니다’ 또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말이죠. 이렇게 일상의 여러 순간에 십자성호를 긋는 까닭은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그것이 비록 작고 하찮은 일일지라도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보면 십자성호는 비록 간단한 동작이지만 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원래 고대 중동 지방의 사형 도구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희생되신 이후 그리스도교 신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교회는 이미 초세기부터 여러 형태의 십자 표시를 전례나 사적인 기도 등에서 사용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마와 가슴, 어깨에 긋는 전형적인 십자성호는 5세기경부터 나타났지만, 이것이 전례나 개인기도 등에 널리 쓰이기 시작한 것은 13세기경부터라고 합니다. 특히 이 동작은 중세 초기에 성삼 기도문과 합쳐지면서 더욱 일반화되었지요. 이마와 가슴, 양 어깨에 십자성호를 긋는 이유는 이들 부위가 우리 인간의 몸과 마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마와 입술 및 가슴에 십자 표시를 하는 것을 ‘작은 십자성호’라 합니다. 작은 십자성호 역시 중세기 이전부터 애용되었지만 전례 안에 들어온 것은 12세기 이후부터입니다. 현재는 미사의 말씀 전례 중 복음 봉독 직전에 이 작은 십자성호를 긋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해설이 있으나, 대체로 ‘복음 말씀을 머리로 깨닫고 입으로 선포하며 마음으로 받아들여 실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합니다. 사람이나 사물에 십자표를 그리는 행위는 4~5세기부터 안수의 의미로 하기 시작했는데 축성, 축복, 사죄, 구마 등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십자 표시는 십자가상의 죽음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짙막하고 명료한 신앙 행위가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십자 표시를 통해 인간에게 빛과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의 수난과 부활을 기념하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Quiz 괄호 안을 채워 보세요

우리가 기도나 전례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여러 순간에 ()를 긋는 까닭은 모든 일을 () 안에서 ()과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복음 봉독 직전에 작은 십자성호를 긋는 것은 복음 말씀을 ()로 깨닫고 ()으로 선포하며 ()으로 받아들여 실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7월23일 자 정답: ①-⑧, ②-⑦, ③-⑥, ④-⑤

◆유환민 마르첼리노 신부 / 서울대학교 홍보국

「성경 속 동식물」 29 용맹스럽고 신성한 말

성경에서 말은 용맹과 전쟁, 재난을 상징한다. 말은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었기에 군사적 힘과 국가적 안전의 상징이 됐다.(시편 20,8 참조) 그런데 하느님은 군마를 그리 높이 평가하지 않으셨다.(신명 17,16 참조; 20,1참조) 오히려 이스라엘 역사에서 주님은 당신이 기마와 병거보다 우월하심을 보여주셨다.(탈출 14,28 참조) 말이 가진 특징으로 공격성과 완고함, 미련함을 들 수 있는데 이 특징들을 이스라엘 백성에 비유해서 언급한다.(예레 8,6; 5,8; 잠언 26,3 참조)

◆ 「성경 속 동식물」 /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발행

하린 한의원

최이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3938 Sepulveda Bl. Torrance, CA 90505
☎(424)337-0788/0789

써니 사이드 장의사

OC & LA / 본사: 714-932-8091 (24시간)
천주교 장례미사에 경험을 갖춘 3명 이상의
장례전문인이 서비스합니다.
서비스를 비교해 주십시오.
www.sunnysidecremation.com

수호천사보험

시니어메디케어건강보험전문(65세이상)
장례보험/장례적금/장례계획/묘지구입문의
오바마건강보험(CoveredCA)공인에이전트
Jay Lee(이안셀모) 310-908-8823
CA Inc.Lic.#0E75182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1단 6개월 \$ 120, 1년 \$240
(12월, 6월 신청가능)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BRE#01405988 New Star Realty

장례에 관한 모든 상담

조 마리아

☎ (310)987-0736

자녀들에게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 코지다운/Cozy Down ♣

명품거위털이불, 레녹스 등 각종그릇, 한국떡배
2424 Sepulveda Blvd # J, Torrance, CA
☎ 310-784-1212

1단 6개월 \$ 120, 1년 \$240
(12월, 6월 신청가능)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마루, 타일, 화장실,부엌
한국식 온돌보일러 설치
김찬구 요한 ☎ (310)701-6343
1802 Plaza Del Amo Torrance, CA 90501

A-one auto center



AAA approved repair shop
바디 + 정비

~~~~~  
DIESEL ENGINE 전문 정비  
1-310-965-0481

Www.aonetruckauto.com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바오로 & 순길 세실리아



## 그린 약국

GREEN PHARMACY

(310)504-0600

## 플라자 약국

PLAZA PHARMACY

(310)530-3010

3400 W.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 한국 장 의 사

(323)734-5656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형편에 맞춰 상담해드립니다.  
사우스베이에서 오셔도 편리합니다.

##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 (310) 408- 0883 cell

suziechoihomes.com



토렌스 세플베다길

## 뚜레쥬르

새로운 페스트리 식빵

디저트 샐러드 드링크등

더욱 다양해진 메뉴(valid only at café TJL)

2841 Sepulveda Blvd

310-257-6848 이원호 요셉

##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 로미타 양로 보건 센터

가주정부에서 메디칼 환자분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지켜  
드리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김유미 사비나 (310)539-4800  
1234 W. Lomita Blvd., #E, Harbor City

## 오 미카엘(명섭) 치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TCP18894-P 주정부 허가

## 베스트 공항 택시 LA공항전문

24 / 7 미니 밴 형식 대기

TEL)310-516-8282

## 스킨케어

김영란 율리아

☎ (310) 530-3654

1870 W.Carson St. #G Torrance, CA90501

## 베니스안경원

☎(310) 539-2449

24228 Crenshaw Blvd. Torrance, CA

##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 파고다 캐더링

각종 일반찬.캐더링주문 받습니다

김원규 요셉 양희자 불라라

☎ 310-326-5600

2760 Sepulveda Blvd Torrance,CA

## 테니스 레슨

모집대상 : 초,중,고,일반

코치 박개순 도미니코 310-997-7770

## 택시 TAXI

☎(310) 350-9540

신 마르띠노

1단 6개월 \$ 120, 1년 \$240  
(12월, 6월 신청가능)

##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